

### 불가리아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Didar Erdinç Professor  
Bulgaria American University of Economics

#### ■ 주요 내용

- 2016년 8월 13일, 불가리아 중앙은행(BNB)은 자국 전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자산 건전성 검토 및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함.
-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불가리아의 금융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외부 충격에 대해 회복력을 지니고 있으나 개별 은행별 성과를 살펴보면, 상당한 문제를 지닌 은행들이 있음.
- 2016년 말까지 제정될 은행 감독에 대한 법률 개정은 금융 분야의 확실성을 증가시켜, 은행들의 대출 욕구를 강화하고 향후 국가 경제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임.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원지 경제정책동  
TEL 044-414-1076 E-MAIL emerics@kiep.go.kr  
http://www.emerics.org/ http://www.kiep.go.kr/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제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1 이슈 현황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가리아 내 주요 은행들의 신용도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2013년에는 전체 대출의 18%를 차지하던 부실 대출의 비율이 급등함.**

- 2010년~2013년에는 자본 적정성 및 유동성 지표가 크게 하락하면서 불가리아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됨<sup>1)</sup>.
  - 2004년 이후 불가리아 은행들은 주로 유럽 은행의 금융 대란 및 2011년 그리스의 국가부도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떠안고 있었음.
  - 불가리아 은행들은 주로 유럽 은행의 외자 기업들이었으며, 그리스 은행이 전체 은행 자산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었음.
  - 그리스 은행들은 외채 위기를 겪을 상황에 처하고 긴축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됨.
  - 스펀오버 효과<sup>2)</sup>로 인해 유럽 내 잠재적 위험에 대해 불가리아 은행들은 취약할 수밖에 없었음.<sup>3)</sup>
  - 외국 은행들은 모(母) 은행을 통해 크로스보더 대출<sup>4)</sup>을 줄이며 글로벌 위기를 전염시켰으며, 이는 신용경색을 유발하였음<sup>5)</sup>.
  - 신용평가회사 피치(Fitch)는 2011년 7월 15일 유로(Euro) 은행, NBG(유나이티드 불가리안 은행이 소유), 알파(Alpha) 은행, 그리그 국립은행 및 피레우스(Piraeus) 은행과 같은 부실 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함.
  - 불가리아 포스트뱅크의 소유주인 유로뱅크 EFG는 2011년 유럽 연합의 스트레스 테스트에 실패한 여덟 개 은행 중 하나로 기록됨.<sup>6)</sup>

**☒ 불가리아 금융 부분은 예금자들로 인한 뱅크런<sup>7)</sup> 사태로 인해 2014년부터 다시 압박을 받게 됨. 불가리아 중앙은행의 감독이 강화되자,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고조됨.**

- 그 결과, 당국은 불가리아에서 네 번째로 큰 은행인 코퍼릿커머셜 뱅크의 파산을 선포하고 세 번째로 큰 은행인 퍼스트인베스트먼트 뱅크에 구제 정책을 실시함.

1) 2008년 금융 위기 이전, 외국 은행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도의 가파른 성장은 불가리아 은행들의 안전성에 위험을 증가시켜 유럽의 주요 무역상대국들 경제를 강타함.  
 2) 편집자 주 : 스펀오버 효과란, 위기가 국경을 넘어 타국으로 전염되는 현상을 의미함.  
 3) 불가리아 은행들은 유럽으로 인해 확산된 몇 차례의 긴급구제, 특히 2015년 8월에 동의한 그리스의 3번째 긴급구제, 유로존의 “그렉시트”에 대한 위험을 단기적으로 모면함.  
 4) 편집자 주 : 크로스보더 대출이란, 국경을 넘나드는 대출을 의미함.  
 5) 글로벌 경제 위기 발생 이후, 외국은행들은 2016년 2분기에 있을 스트레스 테스트와 자산 건전성 검토에 앞서 대출에 대한 경계 태세를 보임. 이에 따라 은행들은 사적 부분의 대출 규모를 급격하게 줄여 2015년 8월 연평균 9.9% 축소됨. 부실 대출의 증가를 멈출 수는 있었으나 신용 성장을 또한 제한됨.  
 6) 유럽금융감독청은 2009년부터 유럽에서 중요한 대형 상업 은행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함.  
 7) 편집자 주 : 뱅크런이란, 예금을 대량으로 인출하는 현상을 의미함.

☒ 2016년 8월 13일, 불가리아 중앙은행(BNB)은 자국 전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자산 건전성 검토 및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함<sup>8)</sup>.

- 스트레스 테스트는 2016년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불가리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음.
  - 스트레스 테스트의 목적은 불가리아가 유로 환율 조정 제도 가입을 신청하기 전에 2014년 위기 이후 떨어진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를 유럽 연합의 요구사항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 따른 투명한 메커니즘을 통해 끌어올리는 것임.<sup>9)</sup>

## 2 원인 분석

☒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불가리아 은행은 튼튼한 자본을 기반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음.

- 모든 대출 기관은 자본 적정성에 있어 최소한의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였으며,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은행은 없었음.
  - 은행들의 핵심자기자본은 18.9%에 이름.
  - 디미타르 라데브(Dimitar Radev) 중앙은행 총재는 8월 11일 서면을 통해 “이는 최소 규제 요구사항을 상당히 웃도는 수준이며, 가장 최근에 발표된 유럽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른 유럽 연합의 평균보다 높다”고 언급함.<sup>10)</sup>
  - 그는 또한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따라 핵심자기자본 비율이 2018년까지 22.2% 수준으로 오르거나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인해 반대로 14.4% 감소할 수 있다고 발표함.
- 금융 시스템의 자산 건전성 검토 및 스트레스 테스트<sup>11)</sup>에는 6개 외국 은행을 제외한 불가리아 22개 모든 은행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자본 유지 위해 후속 조치 계획을 마련함.
  - 6개 은행에 대해서는 규제 가능한 최소한의 기준에 도달해야 하며,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는 2017~2018까지 자기자본을 증가시키고 위험가중자산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함.

☒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불가리아의 금융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외부 충격에 대해 회복력을 지니고 있으나 개별 은행별 성과를 살펴보면, 상당한 문제를 지닌 은행들이 있었음.

8) 불가리아 중앙은행은 2015 신용기관 및 투자회사의 회복 및 해결에 관한 법률인 이행 및 최종조항과 신용기관에 관한 법 80b조에 근거하여 자산 건전성 검토 및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함. 자산 건전성 검토 및 스트레스 테스트는 불가리아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 표준 선거 절차 후에 독립적인 외부 컨설턴트가 진행함.

9) 유로 시스템에 가입하기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은 2년 간 환율 조정 제도를 따라야 하며 환율안정, 금리 및 인플레이션 수렴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성 같은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불가리아 통화위원회는 국내 통화인 레프의 가치를 유로의 1.95 레프 수준으로 고정함. 이는 중앙은행의 국외자산을 지탱하였으며, 금융 시스템이 유로 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됨.

10) 불가리아와 유럽연합은 은행의 핵심자기자본 최소 비율을 4.5%로 규제하고 있음.

11) 스트레스 테스트는 2가지 가설 시나리오, 즉 기본 시나리오(2018년 예측에 근거, 가장 좋은 결과)와 부정 시나리오(경기 침체 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좋지 않은 결과)를 포함함.

- 특히, 불가리아에서 세 번째로 큰 금융기관인 퍼스트인베스트먼트뱅크는 자기자본을 10억5천2백만 유로, 향후 대출 규모를 24억 유로로 조정할 것을 요청받음.
  - o 이는 전체 금융 분야에서 조정이 필요한 금액의 60%에 해당함. 조정 결과 11.3%인 퍼스트인베스트먼트뱅크의 핵심자기자본이 5%로 감소하였으나 최소 기준인 4.5% 이상이기 때문에 완충 자본은 필요하지 않았음.
- 검토에 따라 자본이 조정되었으며, 은행들의 전체 자본 건전성 비율은 14.8%에서 8.7%로 하락하였으나 유럽 은행의 자본 적정 비율 최소 기준인 8%보다 높았음.
- 퍼스트인베스트먼트뱅크는 2017년 4월까지 이익 보유, 자기자본 비율 증가, 포트폴리오 다양화, 위험 노출 감소, 압류자산매각을 통한 자기자본과 외부자본을 증가시켜야 함.

**❑ 자기자본비율 증가가 필요한 다른 국내 은행은 인베스트뱅크로, 자기자본이 1억7천만 유로에 이름.**

- 자산 건전성 검토 결과 인베스트뱅크는 핵심자기자본 비율을 14.6%에서 6.5%로 줄여 5억2천만 유로로 조정이 필요함. 반면 전체 자본 적정 비율은 18.7%에서 11%로 감소함.
  - o 인베스트뱅크의 경우 불가리아 중앙은행의 기본 시나리오(2018 거시경제 및 재정 결과 또는 가장 유망한 결과에 근거)에서 부정적인 핵심자기자본을 보유한 유일한 은행이었음.
  - o 인베스트뱅크의 주주들은 2017년 4월까지 배당금 및 위험가중자산을 약 7천만 유로 줄이고, 행정비용 제거, 높은 유동성 유지를 통해 자본 적정성을 약 1천만 유로까지 증가시켜야 함.

**❑ 마지막은 빅토리아 커머셜 뱅크임. 빅토리아 커머셜 뱅크는 코퍼릿 커머셜 뱅크<sup>12)</sup>가 인수한 은행으로, 2014년 6월 불가리아 중앙은행의 감독 하에 있었음.**

- 이후 독립 개체로써 은행 운영을 재개함. 빅토리아 커머셜 뱅크는 자기자본을 1천6백만 유로로 증가시켜야 하며, 이는 은행 소유주의 지분 1억5천만 유로에 의한 자기자본 증가를 포함함.

**❑ 불가리아 정부는 국내에서 발생한 뱅크런 사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0만 유로까지 예금을 보장함.**

- 자산 건전성 및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불가리아 당국은 금융 분야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개별 은행에 대한 규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경계태세를 늦춰서는 안 됨.

12) 회계 감사 후, 코퍼릿 커머셜 뱅크는 은행 자산이 감액됨에 따라 2천 1백 60만 유로 감가 상각되어 2014년 11월 은행 허가를 잃음.

## 3

## 전망과 시사점

☒ 코퍼릿 커머셜 뱅크의 파산은 불가리아 은행 감독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금융 시스템 분야에 대한 개혁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

- 금융 분야가 반(反) 거시 경제학적이며 튼튼한 자기자본을 가지고 자본화가 잘 되어 있으나, 몇몇 상태가 좋지 않은 은행들이 존재함. 한편, 최근의 검토 결과는 문제 해결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줌.

☒ 2016년 말까지 제정될 은행 감독에 대한 법률 개정은 금융 분야의 확실성을 증가시켜, 은행들의 대출 욕구를 강화하고 향후 국가 경제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임. **EMERiCs**

## 출처

Bulgarian National Bank's report on the Asset Quality and Stress Tests, August 13, 2016 (in English)

Erdinc, Didar. (2016). "The Reversal of Fortunes?: Demystifying the Role of Foreign Banks during the 2007-2008 Global Crisis in Bulgaria." Article submitted to the journal, Emerging Markets Finance and Trade.

Reuters and Bloomberg various on-site articles